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전력산업과 김도균 과장, 조현훈 사무관(2110-4900)

“ 올 여름 전력난이 없었던 이유”

– ‘발전소 고장율 70% 감소시킨 효과 톡톡 –

◇ (**공급 안정성 확보**) 올여름, '**발전소 책임운영제**', '**고장 복구 Patrol제**' 등을 도입하여 **설비 고장에 의한 공급차질 최소화 → 공급력 최대**

[**고장율 감소**] ‘08~’10년간 평균 불시고장 건수 7건 → **2건으로 감소(70%↓)**

[**피크 경신일, 고장 Zero 달성**] ‘10년 하계 전력 피크일 4일중 고장 3건 → **’11년 피크일 3일중 고장 無**

[**고장복구시간 단축**] 당초 47시간 → **13시간으로 획기적 단축**

⇒ 철저한 원인규명을 거쳐 고장 책임자 1명에 대해서는 **무보직 발령처리**하였고, 우수성과자는 **인센티브 부여**(※지휘계통 연대책임 강화)

◇ (**수요 분산책 강구**) 에너지다소기업(약3,600개) 중심으로 **전력피크기 수요분산에 주력***하고, **냉방온도제한 실태점검 강화 등**

* 피크 예상시기에 **약310만kW의 수요관리를 시행 → 8%(예비력 600만kW)이상의 예비율을 유지**하였음

◇ (**동계 수급 대책**) 冬高夏低 전력 수급상황에 대비, **공급력을 추가 확충**(약200만kW)하고, **‘全임직원 1인 1설비 책임제’ 등을 확대 운영**하는 한편,

○ **수요 관리량 확대 운영**(‘10년 동계 150만kW → 300만kW) 및 **에너지 절약 범국민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 등도 지속 전개할 계획**

□ **지경부**는 올 여름, 다소 타이트한 전력 수급 상황임에도 불구, 큰 위기없이 넘길 수 있었던 것은 **‘설비별 책임 운영제’ 강화도입**과 **집중적 부하관리 등의 대책이 주요하게 작용**했다고 밝힘

□ **발전 5사**는 설비고장에 의한 공급차질 최소화를 위해 '**발전소 책임운영제**', ’**핵심설비 3중 점검제**’, ’**고장 복구 Patrol제**’ **등을 강화 ■ 운영**하여,

○ 지난 3년간 하계 시설 불시고장 평균 건수 대비하여 올여름은 **70%이상 감소(7건→ 2건)**시킬 수 있었으며,

- **2건의 고장**에 대해서도 복구팀을 24시간 Pool 가동하여, 복구시간을 **당초 47시간에서 13시간으로 단축**시키는 등 **고장 즉각 복구체제를 구축**하였고

- 특히, ‘10년 하계 피크 경신일(4회)에는 설비 고장이 3건 발생한 데 비해 **올 여름 피크 경신일(3회*)에는 단 한건의 고장도 발생시키지 않았음**

* **‘11년 하계 피크 경신일**: **7.19**(7,139만kW)→ **8.30**(7,175만kW)→ **8.31**(7,219만kW)

○ 한편, **고장설비 책임자 1명**에 대해서는 **무보직 발령처리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**시켰고, **우수 관리책임자**는 인사고과 차등, 성과급 지급 등의 **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**이라고 밝힘

□ **전력피크 예상기 수요분산책**으로는 3,5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310만kW의 수요관리를 시행하여 **8%(예비력 700만kW)이상의 예비율을 유지**하였으며,

○ 만약의 **수급 불안정 상황(예비력 400만kW미만)에 대비**해서는 자율절전, 전력품질 안정 범위내에서의 전압조정 등을 통해 **약400만kW이상의 추가 예비전력 확보 방안을 마련**해뒀음

□ 또한,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8개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‘**냉방온도 제한제**(7.11~8.27)’ **시행실태 점검을 강화**하였으며,

○ 7~8월중에는 **에너지 절약 대국민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**하고, ‘하계, 1만 에저지절약 우수가구 선발대회’ 등 범국민이 참여하는 **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확산에도 주력**했음

□ 한편, **지경부**는 최근들어 **동고하저의 전력수급 상황이 지속**되고 있어, **올 겨울도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강조**하면서,

○ 올 겨울 전력수급 안정대책으로 발전소 적기 준공*을 통해 **약200만kW의 공급력을 추가 확충하는 한편,**

* **준공 대상설비**: 신고리 #2(95만kW, '11.12.), 예천양수 #2(40만kW, '11.12.) 등

- 발전사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**'1인 1설비 책임제' 등을 확대·운영**하여 설비 고장에 의한 **공급 차질을 최소화**하고

- 특히, 점검 소홀 및 인적 실수 근절을 위해 **지휘계통 연대 책임제** 및 평가와 연계하는 **Feed-back제 등을 강화·정착**시킴

○ 또한, 전력수요 피크기 **수요관리량을 확대 운영**('10년 동계 150만kW → 금년 겨울 300만kW)하고, 다양한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하여 **에너지 절약 참여를 소비자들에게도 직접 호소할 계획임을 밝힘**